

2026. 10.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핵심기관 전북 이전 촉구 결의안



김 제 시 의 회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핵심기관 전북 이전 촉구 결의안

(김진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6 - 118
----------	------------

발의연월일 : 2026. 10. 12.

발 의 자 : 이정자, 유진우, 주상현,
김영자, 오승경, 최보선,
김민완, 오상민, 장민우,
김승일, 김진수, 문순자,
손정애, 정경원 의원

1. 주 문

붙임 “결의문” 과 같음

2. 제안이유

-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제2차 공공기관 핵심기관의 전북 이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자 국가적 과제임
- 전북특별자치도는 제1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금융·연기금 기반 구축 성과뿐만 아니라, 농생명·식품, 첨단소재, 이차전지 등 특화산업과 새만금이라는 국가적 미래 성장거점을 두루 갖춘 최적지임
- 이에 김제시의회의는 김제시민이자 전북도민으로서 염원을 하나로 모아, 핵심 공공기관의 전북 유치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정부는 전북의 금융·연기금, 농생명·식품, 첨단소재·이차전지 등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핵심 공공기관을 전북에 우선 배치해야 함
- 정부는 기존 전북혁신도시와 지역산업의 기반을 고려해 공공기관 이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전북을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해야 함
- 정부와 관계기관은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산업·연구기관 간 연계를 강화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해야 함

4. 참고사항

- 결의문 : 별첨
- 송부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국무조정실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국회의원, 국토교통부장관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핵심기관 전북 이전 촉구 결의문

전북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발전의 든든한 옥토로서 국가적 성장을 뒷받침해 왔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수도권이라는 거대한 블랙홀이 인구와 자본, 일자리와 공공인프라를 모두 빨아들이는 기형적인 일극체제에 갇혀 전북을 비롯한 지방은 청년층 유출과 산업기반 붕괴라는 참담한 지역소멸의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

이제 국가균형발전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나 지역의 민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생존 과제이다. 따라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은 기관의 기계적인 배분을 넘어, 이전 기관의 고유 기능과 지역의 특화 산업이 결합하여 자생적 성장동력을 폭발시키는 ‘전략적 이전’이 되어야만 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제1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을 필두로 한 글로벌 금융·연기금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저력이 있다. 나아가 첨단소재와 이차전지 등 미래 첨단산업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고 있으며, 새만금이라는 국가적 규모의 미래 성장거점까지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전북의 기존 성과는, 전북이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성장축이 될 수 있다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명분이다. 관련 핵심 공공기관이 전북에 뿌리내려

지역의 산업·연구기관과 하나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때, 비로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 인구 유입이라는 진정한 의미의 균형발전 선순환이 완성될 것이다.

이에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은 김제시민이자 전북도민으로서의 간절한 염원,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준엄한 요구를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 단순한 기관 배분이 아닌 국가 생존을 위한 핵심 정책임을 인지하고, 지역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 균형발전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전북이 주도하는 금융·연기금, 농생명, 첨단소재·이차전지 등 지역 특화산업과 완벽한 시너지를 창출할 핵심 공공기관을 전북특별자치도에 우선 배치하라!

하나. 정부는 기존 혁신도시의 기반과 새만금의 무한한 잠재력을 결합하여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고, 전북을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핵심 성장거점으로 강력히 육성하라!

2026. 10. 13.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